제4장 |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곬이	곬을	곬에	곬도	곬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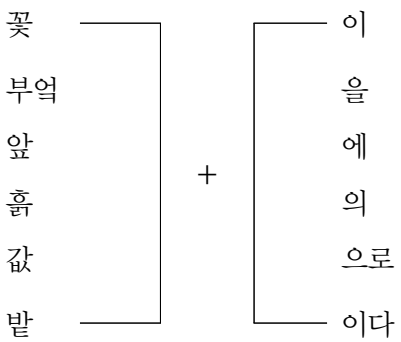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가운데 '어법'에 해당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 형태소인 체언과 형식 형태소인 조사를 분리하여 적음으로써 체언과 조사의 형태를 고정한다. 예를 들어 '값[價]'에 다양한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갑씨　　갑쓸　　갑또　　감만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으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값이　　값을　　값도　　값만

'값이'는 '갑씨'와 비교할 때 실질 형태소 '값'과 형식 형태소 '이'가 분리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항에서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값, 이', '값, 을'의 각 형태를 나누어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씨, 갑쓸', '갑시, 갑슬'이 아니라 '값이, 값을'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이처럼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여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체언과 조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항상 체언과 조사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좇다	좇고	좇아	좇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늙다	늙고	늙어	늙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훑다	훑고	훑어	훑으니
읊다	읊고	읊어	읊으니
옳다	옳고	옳아	옳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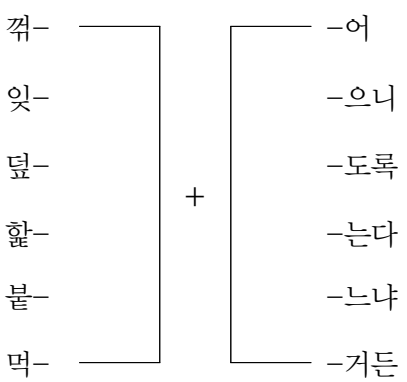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형태를 고정해서 일관되게 적는다. 예를 들어 어간 형태소 '읽-'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일꼬　　익찌　　잉는　　일그니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서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구분되도록 하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읽고　　읽지　　읽는　　읽으니

'읽고'는 '일꼬'와 비교할 때 실질 형태소 '읽-'과 형식 형태소 '-고'가 구분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항에서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일꼬, 익찌, 일거, 일그니'가 아닌, '읽고, 읽지, 읽어, 읽으니'로 어간과 어미의 각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이처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고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어간과 어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항상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붙임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말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앞말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와 달리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단독으로 쓰일 때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변화했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늘어나다(늘다)	늘어지다(늘다)
돌아가다(돌다)	들어가다(들다)
떨어지다(떨다)	벌어지다(벌다)
엎어지다(엎다)	틀어지다(틀다)
흩어지다(흩다)	

위의 예들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본모양대로 적은 것이다. '늘어나다', '돌아가다'에는 '늘다'와 '돌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느러나다', '도라가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넘어지다', '접어들다'는 '넘다'와 '접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을 연관 지어 온 전통에 따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적는다.

이와 달리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본모양대로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는 '들다', '살다', '쓸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쓸다'는 '(빗자루가) 잘 쓸어지다'와는 관련이 있지만 '(나무가) 쓰러지다'와는 의미상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본뜻에서 멀어진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타나다	바라지다[坼]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빠지다[沛]	

[붙임 2, 3]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의 '이오', '이요'는 모두 [이요]로 소리 나더라도 종결 어미로 쓰일 때는 '오', 연결 어미로 쓰일 때는 '요'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오."는 "같이 가오.", "꽃이 예쁘오.", "앉으시오."처럼 어간에 '-오'가 공통적으로 결합한 것이므로 '이-' 뒤에 쓰여 '요'로 소리가 난다고 해도 '요'로 적지 않고 '오'로 적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의 '이요'는

역사적으로 '이고'에서 'ㄱ'이 약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오'가 분리되어 쓰이는 다른 경우가 없이 이미 '요'로 변화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요'로 적는다.

더 알아보기

- **연결형의 '이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연결형에 나타나는 [이요]를 '이요'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이요'를 연결 어미로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이요'를 연결 어미로 기술하면 '책+이요'처럼 체언에 바로 어미가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요'는 '이다'의 어간 '이-'와 연결 어미 '-요'를 분리해서 기술해야 한다. '-요'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과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요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 이것은 말이요, 그것은 소요, 저것은 돼지이다./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얇아	얇아도	얇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국어에서는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 ㅗ’일 때는 ‘-아’ 계열의 어미가 결합하고, ‘ㅐ, ㅓ, ㅖ, ㅕ, ㅚ, ㅜ, ㅟ, ㅡ, ㅢ, ㅣ’ 등일 때는 ‘-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한다. 이처럼 어간의 모음에 따라 어미의 모음이 결정되는 것을 모음 조화(母音調和)라고 한다. 다음은 ‘-아’ 계열과 ‘-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가-		-아		먹-		-어	
막-		-아도		뱉-		-어도	
얇-	+	-아서		세-	+	-어서	
고-		-았-		되-		-었-	
녹-		-았었-		두-		-었었-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요'는 주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가-요　　가리-요　　가지-요　　갈까-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등 뒤에 결합하여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날씨는요 더없이 좋아요.　　어서요 조금만 드셔 보세요.

'참으리요'는 '참으리'에 '요'가 결합한 말이다. '-으리'는 주로 혼잣말로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런데 여기에 '요'가 결합하면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리요.　　우리는 이곳을 지키리요.

한편 '참으리오'는 '참-'에 '-으리오'가 결합한 말이다. '-으리오'는 주로 혼잣말에 쓰이며,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낸다.

가는 세월을 어찌 막으리오.　　모두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으리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놉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붑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둥그니	둥근	둥급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푸다:	퍼	펐다	뜨다:	떠	떴다
끄다:	꺼	껐다	크다:	커	컸다
담그다:	담가	담갔다	고프다:	고파	고팠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바쁘다: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 적

깁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어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난다.

① 먹-다, 먹-어, 먹-으니
② 듣-다, 들-어, 들-으니

'먹다'는 '-다, -어, -으니'와 결합할 때 어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데 비해 '듣다'는 '-다'와 결합할 때는 '듣-'으로, '-어, -으니'와 결합할 때는 '들-'로 어간의 모양이 바뀐다. 그런데 'ㄷ'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듣다'와 같은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믿-다, 믿-어, 믿-으니) 이러한 교체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간과 마찬가지로, 어미도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①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싣다[싣-는, 실-어(← 싣-+-어)]
②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하다[하-고, 하-여(← 하-+-아)]
③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파랗-다[파랗-지, 파래(← 파랗-+-아)]

1. 어간 끝 받침 'ㄹ'이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ㄹ' 등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살다'의 어간 '살-'에 어미 '-네, -세, -오'가 결합하면 'ㄹ'이 탈락하여 '사네, 사세, 사오'가 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간		어미		결합형
살-	+	-네	➡	사네
		-세		사세
		-오		사오
		-ㄹ수록		살수록
		-ㅂ시다		삽시다
		-ㄹ뿐더러		살뿐더러

'갈다, 날다, 말다, 물다, 벌다, 불다, 알다, 울다, 졸다, 팔다' 등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는 'ㄹ'이 예외 없이 탈락하므로 다른 불규칙 활용과 차이가 있다.

[붙임] 어간 끝의 받침 'ㄹ'은 'ㄷ, ㅈ'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ㄹ'이 탈락한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탈락한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말-+-지+못하다) 예 사정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들어주었다.
마지않다(←말-+-지+않다) 예 참석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마다(←-다+말-+-다) 예 암, 네 말이 맞다마다.
-자마자(←-자+말-+-자) 예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 어간 끝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긋다, 낫다, 붓다, 잇다, 잣다, 젓다, 짓다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씻다, 웃다

짓다 짓-+-어 → 지어
짓-+-은 → 지은
짓-+-어도 → 지어도

웃다 웃-+-어 → 웃어
웃-+-은 → 웃은
웃-+-어도 → 웃어도

3.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이에 따라 '노랗-'에 '-아'가 결합하면 '노래'와 같이 활용하고, '누렇-'에 '-어'가 결합하면 '누레'와 같이 활용한다. 또한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어간에 '-네'가 결합하면 '노라네'와 '노랗네'로 활용한다.

노랗다 노랗-+-은 → 노란
노랗-+-으니 → 노라니
노랗-+-아 → 노래
노랗-+-아지다 → 노래지다

노랗-+-네 → 노라네/노랗네

누렇다 누렇-+-은 → 누런
누렇-+-으니 → 누러니
누렇-+-어 → 누레
누렇-+-어지다 → 누레지다
누렇-+-네 → 누러네/누렇네

그런데 '노랗다, 누렇다'와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차이가 있다. '노랗다, 누렇다'는 어간 끝음절 모음에 따라 '노래, 누레'로 활용하지만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그래, 이래, 저래'로 일관되게 활용한다.

그렇다 그렇-+-어 → 그래
그렇-+-어지다 → 그래지다

저렇다 저렇-+-어 → 저래
저렇-+-어지다 → 저래지다

다만,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중 '좋다'는 활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좋다 좋-+-네 → 좋네
좋-+-은 → 좋은
좋-+-으니 → 좋으니
좋-+-아 → 좋아
좋-+-아지다 → 좋아지다

4. 어간이 모음 'ㅜ'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ㅜ, ㅡ'가 나타나지 않는다.

푸다	푸-+-어 → 퍼
	푸-+-어서 → 퍼서
	푸-+-었다 → 펐다
아프다	아프-+-아 → 아파
	아프-+-아도 → 아파도
	아프-+-았다 → 아팠다

'ㅜ'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푸다' 하나이며 'ㅡ'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로는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끄다, 나쁘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잠그다, 치르다, 크다, 트다' 등이 있다. 'ㅡ'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ㄹ' 탈락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ㅡ'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다른 불규칙 활용과 차이가 있다.

5.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걸음을) 걷다, 긷다, 깨닫다, 눋다, 닫다(빨리 뛰다), 듣다, (물음을) 묻다, 붇다, 싣다, 일컫다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빨래를) 걷다, 곧다, 굳다, (문을) 닫다, 돋다, 뜯다, (땅에) 묻다, 믿다, 받다, 벋다, 뻗다

(안부를) 묻다	묻-+-어 → 물어
	묻-+-으니 → 물으니
	묻-+-은 → 물은

(땅에) 묻다　　묻-+-어→묻어
묻-+-으니→묻으니
묻-+-은→묻은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고기를) 굽다, 깁다, 노엽다, 눕다, 더럽다, 덥다, 맵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밉다, 사납다, 서럽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꽃답다, 슬기롭다, 자연스럽다' 유형 등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추위에 손이) 곱다, (허리가) 굽다, 꼬집다, (손을) 꼽다, 다잡다, 비집다, 뽑다, 수줍다, 씹다, 업다, 잡다, 접다, 좁다, 집다, 헤집다

눕다　　눕-+-어→누워
눕-+-으니→누우니
눕-+-었다→누웠다

잡다　　잡-+-아→잡아
잡-+-으니→잡으니
잡-+-았다→잡았다

한편 '돕다'와 '곱다'의 어간이 '-아'와 결합하여 '도와, 고와'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돕다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와야, 도왔다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와야, 고왔다

7. 어간 '하-' 뒤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하여'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하여'는 '해'로 줄어들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2 참조)

하다	하-+-아 → 하여 → 해
	하-+-아라 → 하여라 → 해라
	하-+-아도 → 하여도 → 해도
	하-+-았다 → 하였다 → 했다

8. '이르-, 푸르-' 등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이르러, 푸르러' 등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푸르다	푸르-+-어 → 푸르러
	푸르-+-어서 → 푸르러서
	푸르-+-었다 → 푸르렀다
	푸르-+-어지다 → 푸르러지다

어간 끝음절이 '르'인 용언 가운데, '노르다, (빛깔이) 누르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ㅡ'가 탈락하고 'ㄹ'이 덧붙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모르다	모르-+-아 → 몰라
	모르-+-아서 → 몰라서
	모르-+-았다 → 몰랐다
부르다	부르-+-어 → 불러
	부르-+-어도 → 불러도
	부르-+-었다 → 불렀다

'빛깔이 누르다, 목적지에 이르다'의 '누르다, 이르다'는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이지만 'ㄹ'이 덧붙지 않고 '누르러, 이르러'로 활용한다.

더 알아보기

- **'-거라/-너라 불규칙'의 소멸**

'가다'와 '오다'에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대신에 '-거라'와 '-너라'가 결합한다고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아라/-어라'와 '-거라', '-너라'가 의미와 어감이 다르다고 보아 '가라(←가-+-아라), 가거라'와 '와라(←오-+-아라), 오너라'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거라/-너라 불규칙'이라고 하였던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라', '-너라'는 '-아라/-어라'에 비해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 **'말다'의 활용형**

'말다'의 어간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마라'와 '말아라' 두 가지로 활용하고, '-아'가 결합할 때에도 '마'와 '말아' 두 가지로 활용한다. 또한 '말-'에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말라'는 구체적으로 청자가 정해지지 않은 명령문이나 간접 인용문에서 사용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마/말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말아요.
나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실내에서는 떠들지 말라고 하셨다.

- **피·사동 접미사 결합형**

어간 끝음절 '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ㅡ'가 탈락하면서 'ㄹ'이 덧붙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르'로 끝나는 어간에 피·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가르다　　가르-+-이-+-다→갈리다
부르다　　부르-+-이-+-다→불리다
구르다　　구르-+-이-+-다→굴리다
오르다　　오르-+-이-+-다→올리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앎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髢]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용언의 어간에 '-이', '-음/-ㅁ'이 결합하여 명사가 되거나 '-이',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명사를 만드는 '-이'나 '-음/-ㅁ'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굽이(굽다)	귀걸이(걸다)	귀밝이(밝다)
넓이(넓다)	놀음놀이(놀다)	더듬이(더듬다)
대뚫이(뚫다)	물받이(받다)	물뿜이(뿜다)
배앓이(앓다)	뱃놀이(놀다)	손님맞이(맞다)
손잡이(잡다)	액막이(막다)	여닫이(닫다)
옷걸이(걸다)	점박이(박다)	하루살이(살다)
해돋이(돋다)	호미씻이(씻다)	휘묻이(묻다)

갈음(갈다)	게걸음(걷다)	고기볶음(볶다)
그을음(그을다)	모질음(모질다)	삶(살다)
솎음(솎다)	수줍음(수줍다)	앙갚음(갚다)
엮음(엮다)	용솟음(솟다)	판막음(막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히'도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여러 어간에 결합하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곧이(곧다)	끝없이(없다)	옳이(옳다)	적이(적다)
밝히(밝다)	익히(익다)	작히(작다)	

그렇지만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라도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굽도리'에는 '돌다'의 의미가, '무녀리'에는 '열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문열이'로 적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너비	도리깨	빈털터리

즉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본뜻이 유지됨	본뜻에서 멀어짐
걸다	목걸이(목에 거는 물건)	목거리(목이 아픈 병)
놀다	놀음(놀이)	노름(돈내기)

다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에 '-이, -음'이 결합하여 소리가 변한 경우에는 변한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쉽-'에 '-이'가 결합한 말은 [쉬이]로 발음되고, '서럽-'에

'-음'이 결합한 말은 [서:러움]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것을 원형을 밝혀 '쉽이, 서럽음'으로 적으면 [쉬비, 서:러븜]으로 읽혀서 표준어와는 달리 발음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은 소리대로 '쉬이, 서러움'으로 적는다.

[붙임] '-이',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간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① 명사로 된 것

너머(←넘-+-어)	뜨더귀(←뜯-+-어귀)	마감(←막-+-암)
마개(←막-+-애)	무덤(←묻-+-엄)	쓰레기(←쓸-+-에기)
얼개(←얽-+-애)	우스개(←웃-+-으개)	주검(←죽-+-엄)

② 부사로 된 것

도로(←돌-+-오)	마주(←맞-+-우)	모람모람(←몰-+-암)
미처(←및-+-어)	바투(←밭-+-우)	차마(←참-+-아)

③ 조사로 된 것

나마(←남-+-아)	부터(←붙-+-어)	조차(←좇-+-아)

'너머'는 '넘다'에서 온 말이지만 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넘다'의 활용형 '넘어'와는 구별된다. '저 산 너머 고향이 있다', '산을 넘어 고향에 간다'와 같이 쓰인다. '차마(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또한 '참다'에서 온 말이지만 부사로 굳어진 말로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와 달리 '참다'의 활용형 '참아'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조사 '나마, 부터, 조차'는 '남-아, 붙-어, 좇-아'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조사가 된 것이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비교적 다양한 명사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아래는 명사 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예이다.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눈눈이
땀땀이	번번이	사람사람이	엎엎이
줄줄이	참참이	철철이	첩첩이
틈틈이	나날이	다달이	
골골샅샅이	구구절절이	사사건건이	

‘겹겹이’는 명사 ‘겹’이 반복된 말에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되었다. 이 경우 명사 ‘겹’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며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기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겹겹이’와 같이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아래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다시 명사가 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원래 명사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고 결합도 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고리눈이	맹문이	안달이	얌전이
억척이	점잔이	퉁방울이	우걱뿔이

[붙임] 그렇지만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근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고랑(←골+-앙)	터럭(←털+-억)	끄트러기(←끝+-으러기)
모가지(←목+-아지)	소가지(←속+-아지)	오라기(←올+-아기)

‘모가치’와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는 명사에 ‘-아치’, ‘-어치’가 결합한 비슷한 구성이지만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 ‘모가치(몫으로 돌아오는 물건)’는 ‘몫’과 ‘-아치’로 분석하면 ‘목사치’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음이 [모가치]인 것을 보면 ‘몫’의 옛말인 ‘목’에 ‘-아치’가 결합된 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발음 [모가치]에 따라 표기도 ‘모가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가치’와는 달리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는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다. ‘값어치[가버치]’는 명사 ‘값’에 ‘-어치’가 결합한 말이므로 이 항의 규정에 따르면 ‘갑서치’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명사 ‘값’이 독립적으로 쓰이고 ‘-어치’도 ‘백 원어치’, ‘천 원어치’, ‘천 달러어치’, ‘얼마어치’ 등의 형태로 비교적 널리 쓰여 왔다는 점에서 ‘값어치’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벼슬아치’ 또한 ‘벼스라치’가 되어야겠지만 ‘-아치’가 비교적 여러 말에 붙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벼슬아치’로 적는다. ‘반빗아치’

도 '반빗(예전에 반찬 만드는 일을 하던 직책)'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이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는 것과 '-아치'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반빗아치'로 적는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홑지다	넋두리	빛깔	옆댕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늙정이	덮개	뜯게질
갉작갉작하다	갉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따랗다	얄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명사와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예를 들어 '값지다'는 명사 '값'에 접미사 '-지다'가 결합한 말이고 '덮개'는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들은 명사와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값) 값지다	(꽃) 꽃답다	(끝) 끝내
(멋) 멋지다	(볕) 볕뉘	(부엌) 부엌데기
(빚) 빚쟁이	(빛) 빛깔	(숯) 숯쟁이
(숲) 숲정이	(앞) 앞장	(옆) 옆구리
(옷) 옷매	(잎) 잎사귀	(흙) 흙질
(높-) 높다랗다	(늙-) 늙다리	(읊-) 읊조리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용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첫째,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겹받침에서 앞에 있는 받침만 소리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핥다'에서 '할짝거리다'가 될 때에는 앞의 'ㄹ'만 발음되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할짝거리다'로 적는다. 이에 비해 '굵다'에서 '굵다랗다'가 될 때에는 뒤에 있는 받침인 'ㄱ'이 발음이 되므로 원형을 밝혀 '굵다랗다[국:따라타]'로 적는다. 즉 겹받침에서 앞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뒤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넓다'에서 '널따랗다'와 '넓적하다'가 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ㄼ'에서 앞의 받침이 발음되는 [널따라타]는 '널따랗다'로 적고, 뒤의 받침이 발음되는 [넙쩌카다]는 '넓적하다'로 적는다.

둘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광어(廣魚)'에 해당하는 '넙치'는 의미상으로는 '넓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분명히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올무(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도 의미상으로는 '옭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다. '골막하다(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또한 '곯다(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와 어원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납작하다(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어원적으로 연관되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하다'로 적는다.

더 알아보기

• **'넓다', '넙죽', '납작' 등의 표기**

'넓다'의 어간 '넓-'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본뜻이 유지되면서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본뜻이 유지되더라도 앞의 'ㄹ'이 소리 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ㅂ'이 소리 나는 경우	넓적이, 넓적하다, 넓적넓적, 넓적다리
	넓죽하다, 넓죽넓죽, 넓죽스름하다, 넓죽이
'ㄹ'이 소리 나는 경우	널따랗다, 널찍하다

다만 '넓-'에 접미사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항상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음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이다.

넓둥글다, 넓삐죽하다

'넙죽 엎드리다'의 '넙죽'은 '넓-'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넙죽'으로 적는다. 이러한 부류의 말 중 '납작'은 좀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먼저 '넙죽 엎드리다'에 대응하는 '납작 엎드리다'의 '납작'은 넓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으로 적는다. 그런데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라는 의미의 '납작하다'는 넓이와 관련이 있지만 '낣작하다'로 적지 않는다. 이는 '낣다'와 같은 말이 없기 때문이다. '납죽'도 마찬가지여서 의미와 상관없이 항상 소리 나는 대로 '납죽'이라고 적는다.

납작	납작하다, 납작납작, 납작납작하다, 납작납작이, 납작스름하다, 납작이
납죽	납죽하다, 납죽납죽, 납죽납죽하다, 납죽납죽이, 납죽스름하다, 납죽이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돋구다	솟구다	돋우다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밭치다
부딪치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젖뜨리다/젖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흩뜨리다/흩트리다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1. 국어에서 어간에 접미사가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형성된 단어의 의미는 어간과 접미사의 의미가 합해진 결과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먹다'에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들 때 사동사의 의미

는 어간의 의미와 접미사의 의미로 예측할 수 있다.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가 결합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먹다'의 의미가 '먹이다', '먹히다'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먹다　　먹-+-이-(사동 파생 접미사)+-다 → 먹이다
　　먹-+-히-(피동 파생 접미사)+-다 → 먹히다

만약 '먹이다'를 '머기다'로, '먹히다'를 '머키다'로 적으면 '먹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와 피동사라는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사동과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사동사나 피동사가 형성된 경우 어간과 접미사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없애다'를 '없-'과 '-애-'로 분석할 경우, '-애-'가 일반적인 접미사와는 달리 다른 어간과는 결합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어간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며 독립성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업새다'보다는 '없애다'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다만, 이러한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라도 어간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리다', '드리다', '고치다', '바치다', '미루다'와 같은 말들은 어원적으로는 '돌다, 들다, 곧다, 받다, 밀다'에 접미사 '-이-, -히-, -우-'가 결합한 '돌이다, 들이다, 곧히다, 받히다, 밀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원래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2. '-치-', '-뜨리-/-트리-'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고 한글 맞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한 바 있다.

'-뜨리-/-트리-'는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둘 다 다양한 어간에 결합하여 널리 쓰인다는 특성이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이에 따라 '깨뜨리다/깨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처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로 기술할 수 있지만 언어 현실에서 '부딪다'는

잘 쓰이지 않고 '부딪치다'가 주로 쓰인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졌다.
선수들은 손바닥을 부딪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붙임] 역사적으로 '미덥다', '미쁘다'는 '믿다'에 접미사 '-업-'과 '-브-'가 결합한 말이고 '우습다'는 '웃다'에 '-읍-'이 결합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분석이 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기쁘다, 슬프다'도 '미쁘다'와 마찬가지로 접미사 '-브-'가 결합한 말이지만 현재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인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깔쭉이	깔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쌕쌕이	쌕쌔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펄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주기	홀쭉이	홀쭈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얼루기	칼싹두기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은 '-이'와 결합하여 명사를 형성하는 경우 본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홀쭉하다'의 어근 '홀쭉'에서 '홀쭉이'가 형성되더라도 '홀쭉'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홀쭉　　홀쭉-하다(몸이 가냘프고 야위다)
　　홀쭉-이(몸이 가냘프거나 야윈 사람)
삐죽　　삐죽-거리다(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삐죽-이(쉽게 토라지는 사람)

또한 이러한 어근은 '-하다', '-거리다', '-이' 등이 모두 결합할 수 있을 만큼 꽤 널리 분포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깜짝'은 '깜짝이', '깜짝하다', '깜짝이다', '깜짝거리다', '깜짝대다', '깜짝깜짝하다' 등 관련된 말들에 다양하게 쓰인다. 따라서 '깜짝'이라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이러한 관련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처럼 원래 어근의 의미가 유지되고 어근이 결합하는 말도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이러한 기준에서 '더펄이', '삐죽이', '살살이', '깔쭉이'는 '더펄거리다', '삐죽거리다', '살살거리다', '깔쭉거리다'가 있으므로 '더퍼리', '삐주기', '살사리', '깔쭈기'로 적지 않는다.

깔쭉　　깔쭉-거리다(거칠고 깔끄럽게 따끔거리다)
　　깔쭉-이(가장자리를 톱니처럼 깔쭉깔쭉하게 만든 동전)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하지 않는 어근에서 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러기'는 '기럭기럭(기러기가 우는 소리)'을 보면 '기럭'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정할 수 있지만 '기럭하다', '기럭거리다'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럭'이 다른 단어를 형성하거나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럭이'로 어근을 밝혀 적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쌕쌕거리다'와 관련이 없는 '여칫과의 곤충'은 '쌕쌔기'로 적지만 관련이 있는 '제트기'는 '쌕쌕이'로 적는다.

쌕쌔기(여칫과의 곤충)

쌕쌕　　쌕쌕-거리다(숨을 거칠게 쉬는 소리를 잇따라 내다)

쌕쌕-이(제트기)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개구리'와 '뻐꾸기'이다. '개구리, 뻐꾸기'는 의성어 '개굴개굴, 뻐꾹'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굴이, 뻐꾹이'로 적어야 할 것 같지만 국어사전에 '개굴하다, 개굴거리다'와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실려 있지 않다. '귀뚜라미, 매미' 등도 '귀뚤하다, 귀뚤거리다', '맴하다, 맴거리다' 등이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얼룩' 또한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얼룩얼룩한 점',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동물'의 의미를 지닌 말을 '얼룩이'가 아닌 '얼루기'로 적는다.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숙덕이다	숙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처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국어에서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는 '-이다'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태어 어근 '반짝'은 '반짝하다', '반짝거리다', '반짝대다', '반짝이다', '반짝반짝하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한다. 이런 경우는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고 어근이 다양한 접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리다'가 결합하는 어근은 '-이다'가 결합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간질거리다, 간질대다	간질이다
깐족거리다, 깐족대다	깐족이다
덜렁거리다, 덜렁대다	덜렁이다
뒤적거리다, 뒤적대다	뒤적이다
들썩거리다, 들썩대다	들썩이다
펄럭거리다, 펄럭대다	펄럭이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이 조항에서는 부사를 형성하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사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히'가 붙어 부사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하다, 꾸준하다, 깨끗하다'에서 '-하다'와 결합하는 '급, 꾸준, 깨끗'을 말한다. 이처럼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와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할 때 어근의 본뜻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이'나 '-히'는 매우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꾸준　　꾸준-하다(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꾸준-히(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버젓　　버젓-하다(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다)
　　버젓-이(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다만, '-하다'가 붙지 않아서 어근과 접미사를 분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의 본뜻이 유지될 때와 유지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다.

반듯　　반듯-하다(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다)
　　반듯-이(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히) 예 소나무가 반듯이 서 있다.
반드시(틀림없이 꼭) 예 오늘 안에 반드시(꼭) 일을 끝내자.

지긋　　지긋-하다(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
　　지긋-이(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예 나이가 지긋이 든 반백의 신사
　　지그시(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예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는 '높이, 많이, 밝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높-, 많-, 밝-' 등의 어근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높이, 많이, 밝히'와 같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둘째,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이'가 결합해도 원래의 부사와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곰곰　　곰곰-이(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생긋　　생긋-이(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

셋째, 반복적인 명사 어근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0항)

곳곳　　곳곳-이(곳곳마다)
집집　　집집-이(모든 집마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하다'와 '없다'가 결합하는 어근은 자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하다'의 경우 '노래하다', '운동하다' 등은 '노래', '운동'이 자립적이므로 '-하다'와 나눌 수

있지만 '딱하다', '착하다' 등은 '딱'과 '착'이 자립적이지 않아서 쉽게 분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없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두말없다', '버릇없다'의 '두말', '버릇'과 '느닷없다', '부질없다'의 '느닷', '부질'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자립적이지 않은 어근과 '-하다', '없다'가 결합한 경우라도 자립적인 어근이 분석되는 것처럼 둘을 나눌 수 있다. 비자립적인 어근이라 하더라도, 독립성이 분명하고 여러 어근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하다', '없다'와 결합하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를 알기 쉽다. '딱하다, 착하다'를 '따카다, 차카다'로 적지 않는 것과 전통적으로 "우리 아기 착도 하지?"와 같은 쓰임이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어근이 자립적이지는 않지만 형태를 밝혀 적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다　거북하다, 깨끗하다, 눅눅하다, 답답하다, 섭섭하다, 솔깃하다
없다　상없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옷
젖몸살	첫아들	칼날	팥알	헛웃음
홀아비	홑몸	흙내		
값없다	겉늙다	굶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받내다	벋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엎누르다
엿듣다	옻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이 조항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에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꽃'과 '잎'이 합성어를 이룰 때 [꼰닙]으로 소리가 나지만 단어의 원형을 밝혀 '꽃잎'으로 적는다. '눈'과 '살'이 합성어를 이룰 때도 [눈쌀]로 소리 나지만 '눈'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살'로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꽃+잎 → 꽃잎

눈+살 → 눈살

빛+나다 → 빛나다

한편 제시한 말 가운데 '끝장', '밑천', '싫증'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실질 형태소로 분명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끝장'은 '끝'에 비해서 '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질 형태소인 '끝'과 함께 쓰여 '끝장'의 전체 의미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장'을 실질 형태소로 분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천[민천], 싫증[실쯩]'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접두사가 자립적인 어근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파생어의 의미를 접두사와 어근의 의미로 예측할 수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헛-+웃음 → 헛웃음
샛-+노랗다 → 샛노랗다
짓-+이기다 → 짓이기다

한편 접두사 '새-/시-, 샛-/싯-'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된다. 된소리, 거센소리, 'ㅎ' 앞에는 '새-/시-'가, 유성음 앞에는 '샛-/싯-'이 결합한다. 이 중 '새-, 샛-'은 뒷말이 양성 모음일 때, '시-, 싯-'은 뒷말이 음성 모음일 때 결합한다.

새까맣다/시꺼멓다	새빨갛다/시뻘겋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새하얗다/시허옇다
샛노랗다/싯누렇다	

[붙임 1] 어원이 분명하더라도 이미 소리가 바뀐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에서 온 말이지만 [하라버지]와 [하라범]으로 발음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대로 적는다.

[붙임 2] 어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며칠'은 '몇 년 몇 월 몇 일'처럼 '몇'이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몇 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몇 월'이 [며둴]로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아재비'는 옛말 '아자비'에서 온 말이다. 그렇지만 '아자비'가 '앚+아비'로 분석된다고 해서 형태가 변한 '아재비'를 '앚애비'로 적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오라비'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비'를 분석해서 '올아비'와 같이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리나케(서둘러서 아주 급하게)'는 어원적으로 '불이 나게'와 관련이 있지만 의미가 멀어졌으므로 '불이나케'와 같이 적을 이유는 없다. 이와는 달리, '섣부르다(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는 '설다(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르다)'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섣부르다(← 설부르다)'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붙임 3] 합성어에서 실질 형태소가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간이', '덧이', '송곳이'로 적어도 'ㄴ' 소리가 덧나서 [니]로 발음된다고(표준 발음법 제29항) 설명할 수 있는데도 '간니', '덧니', '송곳니'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의 전통이 지속된 것은 '간이', '덧이', '송곳이'와 같이 적으면 [가:니], [더시], [송:고시]와 같이 발음하여 [간:니], [던니], [송:곤니]의 발음이 제대로 구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이다. 그런 까닭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로 적지만 합성어나 이에 준한 말에서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등과 같이 적는다.

더 알아보기

- **'일'과 결합한 말의 발음**

'몇 일'로 적으면 [면닐]로 소리가 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日)'이 결합하는 경우 [닐]로 소리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닐]로 소리가 나는 것은 '일[事]'이 결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칠 일(七日)'은 [치릴]로 소리가 나지만 '칠일(칠을 바르는 일)'은 [칠닐]을 거쳐 [칠릴]로 소리가 난다.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삽(불-삽)	부손(불-손)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우짖다(울-짖다)	화살(활-살)

'ㄹ' 받침을 가진 말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게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역사적으로 'ㄹ'은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아래 단어도 그러한 예이다.

나날이(←날+날+-이)	무논(←물+논)	무쇠(←물+쇠)
부넘기(←불+넘-+-기)	아드님(←아들+-님)	차돌(←찰-+돌)

또한,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부당(不當), 부동(不同,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정(不正, 不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짇고리(바느질~)	사흗날(사흘~)	삼짇날(삼질~)
섣달(설~)	숟가락(술~)	이튿날(이틀~)
잗주름(잘~)	풋소(풀~)	섣부르다(설~)
잗다듬다(잘~)	잗다랗다(잘~)	

이 조항은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튿날'은 '이틀'과 '날'이 결합한 것인데, 이때 '이틀날'이 아니라 '이튿날'로 적는다는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틀'과 '날'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쓴 '이틆날'이다. 이와 함께 'ㄹ'이 탈락한 '이틋날'도 나타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튿날'은 바로 '이틋날'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틀+날 → 이틆날 → 이틋날 → 이튿날

'나흗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나흘+날 → 나흖날 → 나흣날 → 나흗날

이 외에 다음과 같은 말도 끝소리 'ㄹ'이 'ㄷ' 소리로 변한 것을 반영하여 'ㄷ'으로 적는다.

잗갈다(← 잘갈다)	잗갈리다(← 잘갈리다)
잗널다(← 잘널다)	잗타다(← 잘타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댓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볏가리	부싯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잿더미	조갯살	찻집	쳇바퀴	킷값
핏대	햇볕	혓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탯줄	텃세
핏기	햇수	횟가루	횟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이 조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님'은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햇님'이 아닌 '해님'이 된다. 이와는 달리 합성어 '햇빛'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둘째, 합성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바다+가 → [바다까] → 바닷가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코+날 → [콘날] → 콧날

비+물 → [빈물] → 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예사+일 → [예:산닐] → 예삿일

예를 들어 '위'는 '길, 물'과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윗길, 윗물'이 되지만 '턱, 쪽'과 결합할 때는 '위턱, 위쪽'으로 쓴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넷줄[그:네쭐/그:넫쭐]'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데 비해 '가로줄[가로줄]', '세로줄[세:로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이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하고 구성 요소 중에 외래어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예를 들어 '개수(個數)', '초점(焦點)',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갯수', '촛점', '기찻간', '전셋방'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지만 여기에는 고유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오렌지빛, 피자집'과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피자'라는 외래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아래의 예들은 조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들이다.

값: 절댓값[절때깝/절땓깝], 덩칫값[덩치깝/덩칟깝], 죗값[죄:깝/줻:깝]
길: 등굣길[등교낄/등굗낄], 혼삿길[혼사낄/혼삳낄], 고갯길[고개낄/고갣낄]
집: 맥줏집[맥쭈찝/맥쭏찝], 횟집[회:찝/훼:찝], 부잣집[부:자찝/부:잗찝]
빛: 장밋빛[장미삧/장믿삧], 보랏빛[보라삧/보랃삧] 햇빛[해삧/핻삧]
말: 혼잣말[혼잔말], 시쳇말[시첸말], 노랫말[노랜말]
국: 만둣국[만두꾹/만둗꾹], 고깃국[고기꾹/고긷꾹], 북엇국[부거꾹/부걷꾹]

한자어에는 규정에서 제시한 두 음절 단어 6개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그 외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외과(外科)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　국어과(國語科)　장미과(薔薇科)

'장미과'와 마찬가지로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인 '과(科)'가 결합한 말이라도, 앞에

고유어가 오는 '고양잇과', '소나뭇과'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고유어 '고양이, 소나무'와 한자어 '과'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다.

고양잇과[고양이꽈/고양읻꽈]	멸칫과[멸치꽈/멸칟꽈]
소나뭇과[소나무꽈/소나묻꽈]	가짓과[가지꽈/가짇꽈]

더 알아보기

- **'차'의 사이시옷 표기**

'차'가 한자어이면 '찻잔, 찻종, 찻주전자'는 '茶盞, 茶鍾, 茶酒煎子'와 같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를 고유어라고 하면 '고유어+한자어' 구성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 현재는 '차'를 고유어로 보고 있으므로 '찻잔, 찻종, 찻주전자'와 같이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댑싸리(대ㅂ싸리)	멥쌀(메ㅂ쌀)	볍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단어가 형성될 때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벼'와 '씨'가 결합하면 [벼씨]가 아니라 [볍씨]가 된다. 이런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볍씨'로 적는다. 또한 '살'과 '고기'가 결합할 때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가 되는데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살코기'로 적는다.

이처럼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앞말에 'ㅂ' 소리가 덧나게 하는 '싸리, 쌀, 씨, 때' 등은 옛말에서 'ᄡᅡ리, ᄲᅡᆯ, ᄴᅵ, ᄠᅢ'와 같이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다. 이들은 후에 단일어에서 모두 'ㅂ'이 탈락되었는데 합성어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남게 된 것이다. 즉 '볍씨'는 현대에 '벼+씨'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씨'가 'ㅂ'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ㅎ'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살', '수' 등은 본래 '살ㅎ', '수ㅎ'와 같이 'ㅎ'을 지닌 말이었고, 이 'ㅎ'이 단일어에서는 탈락하였지만 복합어에서는 일부 남게 된 것이다. 즉 '살코기'는 현대에 '살+고기'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살'이 'ㅎ'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래의 예들도 'ㅂ'과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다.

냅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휩싸다, 휩쓸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다만, '수[雄]-'가 붙은 말이 모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 규정 제7항에는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없는 '수고양이' 등은 '수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암[雌]-'이 붙은 말 중에서도 'ㅎ' 소리가 덧나는 '암캉아지, 암캐, 암컷' 등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암고양이' 등은 '암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제저녁	엊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음절 수가 많은 '본말'에서 음절 수가 적은 '준말'이 형성될 때 어근이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제저녁'이 줄어들어 [얻쩌녁]이 될 때 둘째 음절 '제'에서 남은 'ㅈ'을 첫째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뜻이다.

어제-저녁 → [얻쩌녁] → 엊저녁
디디-고 → [딛꼬] → 딛고

'어제저녁'의 준말 [얻쩌녁]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얻저녁' 또는 '엇저녁'이 되지만 '어제저녁'과의 형태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엊저녁'으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디디고'의 준말을 '딛고'로, '가지고'의 준말을 '갖고'로, '가지가지'의 준말을 '갖가지'로 적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제그저께/엊그저께', '디디고/딛고'처럼 줄어드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받침으로 남는 것과는 달리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어긋-매끼다 → 엇매끼다

바깥-벽 → 밭벽

바깥-사돈 → 밭사돈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뭣을/무얼/뭘
무엇이	뭣이/무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음절의 수가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구어에서 '사과는'과 '사과를'이 '사관'과 '사괄'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또한 '그것', '이것', '저것'에 조사 '으로'가 붙어서 줄어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줄어든다.

그것으로 → 그걸로　　이것으로 → 이걸로

저것으로 → 저걸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외에 부사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에도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그리로 → 글로　　이리로 → 일로
저리로 → 절로　　조리로 → 졸로

제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탔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갰다
내어	내	내었다	냈다
베어	베	베었다	벴다
세어	세	세었다	셌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해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흔하였다	흔했다

국어에서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한 모음으로 줄어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먼저, 모음 'ㅏ, ㅓ'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결합할 때는 'ㅏ/ㅓ'가 줄어든다.

따-+-아 → 따	따-+-았-+-다 → 땄다
건너-+-어도 → 건너도	건너-+-었-+-다 → 건넜다

이 경우에는 두 모음이 반드시 하나로 줄어든다. 따라서 조항에서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항상 줄어든 형태로 적는다는 뜻이다. 즉 '따아, 따아서, 따아도, 따았다'나 '건너어, 건너어서, 건너어도, 건너었다'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ㅅ' 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ㅅ'이 줄어든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으므로 'ㅏ/ㅓ'가 줄어들지 않는다.

낫다: 나아, 나아서, 나아도, 나아야, 나았다
젓다: 저어, 저어서, 저어도, 저어야, 저었다

[붙임 1] 어간 끝모음 'ㅐ, ㅔ' 뒤에 '-어, -었-'이 결합할 때도 모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조항에서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줄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줄어든 경우에만 준 대로 적는다. 즉, '가아 → 가'에서 '가'만을 인정한 것과 달리 '매어 → 매'에서는 '매어/매'를 모두 쓸 수 있다.

매어 → 매	매어라 → 매라
매었다 → 맸다	매어 두다 → 매 두다
떼어 → 떼	떼어라 → 떼라
떼었다 → 뗐다	떼어 놓다 → 떼 놓다

한편 모음이 줄어들어서 'ㅐ'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옷감이 빈틈없이 짜어(○)/짜(×)(← 짜이어) 있다.
도로가 이곳저곳 파어(○)/파(×)(← 파이어) 있다.

[붙임 2]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들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이때도 '하여'와 '해' 모두 쓸 수 있다.

하여 → 해	하여라 → 해라
하여서 → 해서	하였다 → 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ㅙ/ㅞ'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꽈	꼬았다	꽜다
보아	봐	보았다	봤다
쏘아	쏴	쏘았다	쐈다
두어	둬	두었다	뒀다
쑤어	쒀	쑤었다	쒔다
주어	줘	주었다	줬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ㅚ, ㅙ'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괬다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봬	뵈었다	뵀다
쇠어	쇄	쇠었다	쇘다
쐬어	쐐	쐬었다	쐤다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붙어서 '과/궈', '놨/눴'으로 주는 것은 '과/궈', '놨/눴'으로 적는다.

보아→봐　　보아도→봐도　　보아서→봐서　　보았다→봤다
추어→춰　　추어서→춰서　　추어야→춰야　　추었다→췄다

이때에도 줄어든 형태와 줄어들지 않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을 보아라."와 "밖을 봐라."는 둘 다 옳은 표현이다. 다만 '오다'는 '-아' 계열 어미가 결합하여 '오아, 오아라, 오았다' 등과 같이 줄어들지 않은 형태로 쓰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와, 와라, 왔다'처럼 줄어든 형태만 인정한다.

[붙임 1] '놓다'는 '-아'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줄어들 수 있다.

놓아(→노아)→놔
놓아라(→노아라)→놔라
놓았다(→노았다)→놨다

'놓아→놔'가 되는 것은 '좋아→좌'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붙임 2] 어간 모음 '괴' 뒤에 '-어'가 결합하여 '괘'로 줄어드는 경우, '괘'로 적는다. 예를 들어 '되다'와 '뵈다'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되다 모든 게 생각대로 돼(← 되어) 간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어서) 반갑다.
어느덧 가을이 됐다(← 되었다).

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봬서(← 뵈어서) 기뻤다.
그럼 내일 함께 선생님을 봬요(← 뵈어요).
어제 부모님을 뵀다(← 뵈었다).

이 밖에 '꾀다, 외다, 죄다, 쬐다'와 '되뇌다, 사뢰다, 선뵈다, 아뢰다, 앳되다, 참되다' 등도 여기에 해당해서, '-어/-었-'이 결합하면 '꽤/꽸다, 쫴/쫬다, 되놰/되뇄다, 사뢔/사뢨다' 등과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ㅣ'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붙어서 'ㅕ'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녹이어 → 녹여　　먹이어서 → 먹여서　　숙이었다 → 숙였다
업히어 → 업혀　　입히어서 → 입혀서　　잡히었다 → 잡혔다
굶기어 → 굶겨　　남기어야 → 남겨야　　옮기었다 → 옮겼다
굴리어 → 굴려　　날리어야 → 날려야　　돌리었다 → 돌렸다
일으키어 → 일으켜　　돌이키어 → 돌이켜

'가지어 → 가져', '(짐을) 지어 → 져'의 '져'는 [저]로 소리가 나지만 '가지-어', '지-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가져', '져'로 적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치어 → 다쳐', '(손뼉을) 치어 → 쳐'의 '쳐'도 [처]로 소리 나지만 '다치-어', '치-어'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도록 '다쳐', '쳐'로 적는다.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쌔다	누이다	뉘다
펴이다	폐다	뜨이다	띄다
보이다	뵈다	쓰이다	씌다

어간 끝모음 'ㅏ, ㅕ, ㅗ, ㅜ, ㅡ' 뒤에 '-이-'가 결합하여 'ㅐ, ㅖ, ㅚ, ㅟ, ㅢ'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ㅐ, ㅖ, ㅚ, ㅟ, ㅢ'로 적는다. 이때 줄어든 형태와 줄어들지 않은 형태 모두 옳은 표기이다.

까이다 → 깨다　　차이다 → 채다　　모이다 → 뫼다
쏘이다 → 쐬다　　꾸이다 → 뀌다　　트이다 → 틔다

한편 '-스럽다'로 끝나는 형용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스레'가 되는 경우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새삼스레(← 새삼스럽-+-이)　　천연스레(← 천연스럽-+-이)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쌔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뵈어 보여	쓰이어	씌어 쓰여
쏘이어	쐬어 쏘여	트이어	틔어 트여
누이어	뉘어 누여		

'ㅏ, ㅗ, ㅜ, ㅡ'로 끝난 어간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모음이 줄어들 때는 준 대로 적는다. 이때에는 'ㅏ, ㅗ, ㅜ, ㅡ'와 '-이어'의 '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ㅐ, ㅚ, ㅟ, ㅢ'가 될 수도 있고, '-이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여'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싸다'의 어간에 '-이어'가 결합한 '싸이어'는 '쌔어'가 되기도 하고 '싸여'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속하는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까이어 → 깨어/까여　　꼬이어 → 꾀어/꼬여
누이어 → 뉘어/누여　　뜨이어 → 띄어/뜨여
쓰이어 → 씌어/쓰여　　트이어 → 틔어/트여

더 알아보기

- **'띄어쓰기' 표기**

'띄다'는 본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뜨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띄우다'이다. '뜨이다'는 '뜨다'의 피동사로, '눈이 뜨이다', '귀가 뜨이다'와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뜨이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공간이 생기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책상 사이를 띄우다', '단어 사이를 띄우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볼 때, '띄어쓰기'에 나타난 '띄다'는 '띄우다'의 준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띄우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로는 쓸 수 없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가지어'와 '그치어'의 준말을 '가져'와 '그쳐'로 적는 방식(한글 맞춤법 제36항)에 따른다면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은 '잖'과 '챦'으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 원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잖', '찮'으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의 예들은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로 다루는 것들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

달갑잖다(← 달갑지 않다)
시답잖다(← 시답지 않다)
올곧잖다(← 올곧지 않다)
편찮다(← 편하지 않다)
마뜩잖다(← 마뜩하지 않다)
오죽잖다(← 오죽하지 않다)
당찮다(← 당하지 않다)

그런데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이 한 단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 단어가 아니라고 해서 '잖, 찮'으로 달리 적으면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어와 단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잖, 찮'으로 적도록 한다.

그렇잖다(←그렇지 않다)
두렵잖다(←두렵지 않다)
편안찮다(←편안하지 않다)
허술찮다(←허술하지 않다)

위의 예들은 한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잖', '찮'으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간편하게'가 [간편케]가 되면 '간편케'로 적는다. 그런데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가 통째로 줄지 않고 'ㅎ'이 남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무능하다 → 무능타	부지런하다 → 부지런타
아니하다 → 아니타	감탄하게 → 감탄케
달성하게 → 달성케	실망하게 → 실망케
당하지 → 당치	무심하지 → 무심치
허송하지 → 허송치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실천하도록 → 실천토록	추진하도록 → 추진토록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달성하고자 → 달성코자
사임하고자 → 사임코자　　청하건대 → 청컨대
회상하건대 → 회상컨대

둘째,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다.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익숙하지 못하다 → 익숙지 못하다
갑갑하지 않다 → 갑갑지 않다 → 갑갑잖다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잖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넉넉잖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이다.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ㄱ]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넉넉잖다
[ㄷ]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잖다
[ㅂ] 답답하지 않다 → 답답지 않다 → 답답잖다

[ㄴ]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ㄹ]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ㅁ] 무심하지 → 무심치
[ㅇ] 회상하건대 → 회상컨대
[모음] 개의하지 → 개의치

[붙임 1] 그런데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든 형태가 여기에 속한다.

아니하다 → 않다	그러하다 → 그렇다
아무러하다 → 아무렇다	어떠하다 → 어떻다
이러하다 → 이렇다	저러하다 → 저렇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게, 않고, 않지, 않든지, 않도록
이렇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지, 이렇거나

[붙임 3]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현재 부사로 굳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사 '아무튼, 하여튼'은 '아뭏든, 하옇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을 '이러튼, 저러튼, 그러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부사 '어떻든(어떻든 함께 가자)'은 형용사 '어떻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튼'으로 적지 않는다.